

웨이드 컬렉션(Wade Collection)에 나타난 유가 경전 및 소학류 서적에 대한 검토

신원철*

<目 次>

1. 들어가며
2. 웨이드 컬렉션 소개
3. 웨이드 컬렉션의 유가 경전 및 소학류
 - 3.1 유가 경전류
 - 3.2 소학류
4. 그 특징 및 의의
5. 나오며

1. 들어가며

본 발표문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 소장된 웨이드 컬렉션에 나타난 유가 경전 및 소학류 서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구에 소개된 경학 및 소학류 자료의 면모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웨이드 컬렉션(Wade Collection)은 토머스 프랜시스 웨이드(Thomas Francis Wade, 1818-1895)가 40여 년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수집한 중국 관련 서적을 가리킨다. 이에 대한 목록으로 1898년 헐버트 자일즈(Herbert A. Giles)가 간행한 'A Catalogue of the Wade Collection of Chinese and Manchu Books in the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이하 본 논문에서는 '컬렉션 목록'이라 할 것이다.)이 있다.¹⁾

웨이드 컬렉션에 대한 소개는 鄭志民(2019)에서 볼 수 있다. 鄭志民(2019)에서는 웨이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성립과 관련한 내용 중 서양 문헌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용하면서 웨이드 컬렉션의 성립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그 컬렉션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언급했을 뿐, 어떠한 책이 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다. 그 외에는 각각의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웨이드 컬렉션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그 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웨이드 컬렉션에 대한 그 성립의 연원 등 소개를 거쳐 그 중 유가 경전 및 소학류의 종류를 컬렉션 목록에서 추출하여 그 수량과 특징, 그 의의를 검토, 고찰하고자 한다.

2. 웨이드 컬렉션 소개

이미 들어가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머스 프랜시스 웨이드(Thomas Francis Wade, 威妥瑪, 1818-1895)가 40여 년간 중국에서 수집한 중국 관련 서적을 웨이드 컬렉션이라 칭하였다. 이 장에서는 웨이드 컬렉

*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HK+사업단 HK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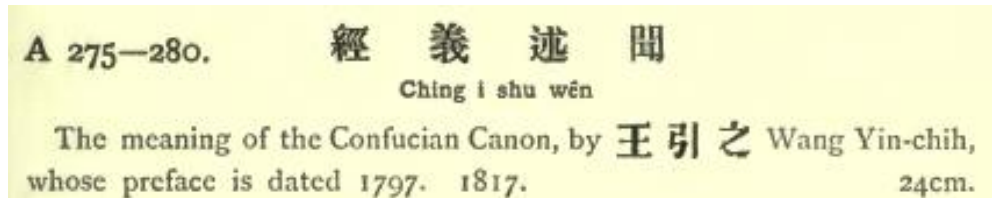
1) 이에 대한 설명은 2장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선의 장본인 토머스 프랜시스 웨이드 본인에 대한 정보와 그 컬렉션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²⁾

토머스 프랜시스 웨이드는 1818년 영국 런던의 군인 가족으로 태어났다. 1837년 케임브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를 졸업하고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대에서 활동하였다.³⁾ 이후 그는 외교관을 거쳐 중국학자로서 케임브리지 대학교 초대 중국어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당시 최고 수준의 중국어 교재인 《어언자이집(語言自邇集)》, 《문건자이집(文件自邇集)》 등이 있다.

웨이드 컬렉션은 위에서 언급한 토머스가 외교관으로 활동한 40여 년동안⁴⁾ 꾸준히 수집했던 중국 관련 서적 모음이다. 웨이드가 위의 저작을 짓는 일을 포함하여 중국에서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때, 중국에 대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수집한 것이다. 이를 목록으로 남긴 사람은 허버트 알렌 자일즈(Herbert Allen Giles, 翟理斯, 1845-1935)이다.⁵⁾ 목록 자체는 웨이드가 자신이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수집했던 순서대로 분류 번호를 매겨 놓았고⁶⁾, 그는 이를 계승하여 목록을 책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목록 체계는 수집된 순서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검색이 불편하다. 따라서 그는 이를 해소하고자 저자와 서명에 대한 영문 색인을 책 말미에 추가하였다.⁷⁾

컬렉션 목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서적에 대해 분류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하는 서적의 중국어 명칭을 한자와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그 아래에는 그에 대한 책의 성격 및 저자, 서문의 기재 연도 등 간단한 설명, 해당 책의 크기(세로 × 가로 cm, 혹은 세로 cm) 등이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275-280. 經義述聞

Ching i shu wen

The meaning of the Confucian Canon, by 王引之 Wang Yin-chi, whose preface is dated 1797. 1817. 24cm.

이러한 정보를 통해 책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이전의 목록과 현재 도서관 검색 시스템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비교 표를 제공하고 있다.⁸⁾

2) 그에 대한 간략한 전기 등은 鄭志民(2019), 신원철 등(2021), 위키피디아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3) 이상은 鄭志民(2019), p.182.

4) 웨이드의 중국 체류 기간은 1842-1883으로 40여 년이라 할 수 있다.

5) 그는 웨이드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중국어 교수를 하였다.

6)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7) Giles(1898), PREFATORY NOTE, p.VII. "기부자(즉 토머스 프랜시스 웨이드)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맞게 채택된 분류를 그대로 두었고, 따라서 책은 그가 남겨둔 실제 순서대로 정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검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작품 제목과 저자 이름의 알파벳순 목록을 목록의 보충 자료로 추가했다."(A rough classification, adopted by the donor to suit the room at his disposal, has been allowed to stand, and the books are therefore in the actual order in which he left them. In view however of any difficulties of search likely to arise from such arrangement, alphabetical lists both of the titles of the works and of the names of the authors have been added as a supplement to the Catalogue.)

8) <https://www.lib.cam.ac.uk/collections/departments/chinese-collections/chinese-collections-physical-format/wade-collection>(접속일: 2025.04.15.)

자일즈는 서문에 해당하는 PREFATORY NOTE에서 웨이드 컬렉션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 수집품은 40년간 동양에 거주하면서 중국 문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최고의 작품의 최선본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일반 학생의 요구에 훌륭하게 적합한 종합 장서가 되었다." (This collection was formed during a residence of forty years in the East by judicious selection of the best editions of the best works in the most important branches of Chinese literature; and the result is a comprehensive library admirably suited to the needs of any ordinary student.)⁹⁾

이후 그는 1915년 보충 목록을 다시 작성하였다. 이는 앞에서의 웨이드 컬렉션 이후 1915년까지 수집된 중국어 서적을 정리한 것으로, 웨이드 컬렉션의 보충적인 성격을 띠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여기에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3. 웨이드 컬렉션의 유가 경전 및 소학류

앞에서 웨이드 본인과 웨이드 컬렉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웨이드 컬렉션 중 유가 경전 및 소학류에 해당하는 서적 목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일즈가 목록을 책으로 내기 이전에 이미 웨이드에 의해서 일정 정도 목록이 작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¹⁰⁾

그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 자일즈의 목록에서는 앞에 나온 로마자가 그 분야를 대표하는 분류기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大戴禮記》는 A54., 명나라 때 梅膺祚가 지은 사전인 《字彙》는 E422-424.로 표시한다.

A. 주로 고전의 편집본과 유교 경전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주석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도가 철학자의 글과 다양한 불교 경전 등도 포함되어 있다.[175 작품, 478권.]¹²⁾

B. 역사, 전기 및 법령 항목 아래에 이 분야에는 227권인 대량의 권으로 된 중국 22사의 완전하고 통일된 판본(B 734)¹³⁾, 마단립(馬端臨)의 훌륭한 백과 사전(489)¹⁴⁾과 그 원형(476)¹⁵⁾ 및 이후 증보판(527 및 629), 역사의 거울(961)¹⁶⁾, 현 왕조의 법령(261)¹⁷⁾, 형법(134)¹⁸⁾, 복본의 다양한 모음집 등이 포함되어 있다.[291 작품. 2038권.]¹⁹⁾

C. 이 지리 분야의 주요 특징은 24권의 대량의 권으로 된 제국 지리학(85)²⁰⁾이다. 여기에는 대학 도서

9) Giles(1898), PREFATORY NOTE, p.VII.

10) 본 발표문 2장 주 6) 참조.

11) Giles(1898), PREFATORY NOTE, p.VII-VIII, 鄭志民(2019), p.185.

12) A. Chiefly devoted to editions of the Classics and to exegetical works upon various portions of the Confucian Canon, but containing also the writings of Taoist philosophers, various Buddhist sutras etc. etc. [175 works in 478 vols.]

13) 《二十四史》를 가리킨다.

14) 《文獻通考》를 가리킨다.

15) 《通典》을 가리킨다.

16) 《資治通鑑》을 가리킨다.

17) 《大清會典事例》를 가리킨다.

18) 《大清律例按語》를 가리킨다.

19) B. Under the heads of History, Biography, and Statutes, this section contains (B 734) a complete and uniform edition of the Twenty-two Dynastic Histories of China in 227 large volumes, the splendid encyclopaedia of Ma Tuan-lin (489), with its prototype (476) and subsequent enlargements (527 and 629), the Mirror of History (961), the Statutes of the present dynasty (261), the Penal Code (134), various collections of reprints, etc. etc. [291 works in 2038 vols.]

관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114)²¹⁾도 있다.[56 작품. 263권.]²²⁾

D. 이 분야에는 약간의 선구적 소설, 몇몇 희곡과 수필, 그리고 현 왕조의 시인들의 작품에서 발췌한 3권(146-148)²³⁾을 포함한 훌륭한 선집 모음이 포함되어 있다.[85 작품. 321권]²⁴⁾

E. 강희의 황제 사전의 아름답고 중요한 판본(225)²⁵⁾ 외에도, 이 분야에는 대문학 인용집(265)²⁶⁾, 황실 도서관의 기술 목록(143)²⁷⁾, 그리고 여러 중요한 백과사전과 같은 일반 학생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많은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481권.]²⁸⁾

F. X. Y. 이 분야의 '다양한' 책 중에서 태평천국의 난 시기 태평천국이 발행한 유인물의 희귀 모음집(F 35)²⁹⁾과 1599년 발간한 군사 백과 사전의 초반 12권(F 124)³⁰⁾이 언급될 만하다.[47 작품. 405권]³¹⁾

Z. 이 분야는 종교와 과학 작품의 다양한 번역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 선교단이 중국 황태후 60번째 생일에 선물한 중국어 신약 성경 사본(40)³²⁾과 1607년 마테오 리치가 부분적으로 번역하고 알렉산더 와일리가 1857년 완성한 유클리드 사본(41)³³⁾이 있다. [32작품 41권]³⁴⁾

G. 이 분야는 만주어와 몽골어 학습자를 위한 것으로, 중국 고전의 번역에 더하여 초보자에게 유용한 몇몇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다. [87 작품. 286권.]³⁵⁾

이를 합치면 총 883 작품, 4304 권이 된다고 목록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품과 권수를 더해보면 773작품, 4313권이 된다. 살펴보면 E. 항목에 작품이 없다(no works)고 되어 있지만, 해당 항목을 헤아리면 110 작품이 된다. 이를 추가하면 숫자가 맞다. 권의 경우는 복잡하다. 각 항목에서 숫자가 누락된 곳이 있기 때문이다.³⁶⁾ 이를 헤아려서 뺀 것이라면 숫자는 4302가 되어야 한

20) 《大清一統志》를 가리킨다.

21) 《異域國志》를 가리킨다.

22) C. The chief feature of this the Geographical section is the Imperial Geography (85) in 24 large vols. Here is also to be found (114) the oldest printed book in the University Library. [56 works in 263 vols.]

23) 《閩秀正始集》을 가리킨다.

24) D. This section contains a few of the leading novels, some plays and essays, and a good collection of anthologies, including three volumes (146—148) of specimens from the writings of the poetesses of the present dynasty. [85 works in 312 vols.]

25) 《康熙字典》 武英殿本, 즉 殿本을 가리킨다.

26) 《佩文韻府》를 가리킨다.

27) 《四庫全書總目提要》를 가리킨다.

28) E. Besides a beautiful and valuable edition of the Imperial Dictionary of K'ang Hsi (225), this section comprises many works of especial value to the general student, such as the great literary Concordance (265), the descriptive Catalogue of the Imperial Library (143), and several important encyclopaedias, [no works in 481 vols.]

29) 《三字經》, 《千字文》 등이 포함된 1850-1864 사이에 발간된 34장의 유인물을 가리킨다.

30) 《登壇必究》를 가리킨다.

31) F. X, and Y. Among the "Miscellaneous" books in these sections may be mentioned a rare collection of pamphlets (F 35) issued by the Tai-p'ings during their great rebellion, and the first 12 volumes of a military encyclopaedia (F 124) published in 1599. [47 works in 405 vols.]

32) 《新約全書》를 가리킨다.

33) 《幾何原本》을 가리킨다.

34) Z. This section contains various translations of religious and scientific works ; among them a facsimile copy of the New Testament in Chinese (40) as presented to the Empress-Dowager of China on her 60th birthday by the missionary body, and a copy of Euclid (41) partly translated by Matteo Ricci in 1607 and finished by A. Wylie in 1857. [32 works in 41 vols.]

35) G. This section is for students of the Manchu and Mongol languages, and contains in addition to translations of the Chinese Classics several useful handbooks for beginners. [87 works in 286 vols.]

36) A.12, 14, 31, 357, 362, B.1217, 1453, E.176, 177, 178, Z.18 등이 누락되어 있다.

다. 이 또한 숫자가 맞지 않다. 그 외에도 숫자 뒤에 a, b가 붙어 다른 판본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³⁷⁾ 이를 숫자로 포함시켜야 할지 등까지 고려하자면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웨이드는 케임브리지 대학 부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적인 것 또는 불완전한 모든 것을 제외하면, 유교 철학의 초기와 후기 학파, 고고학, 역사와 공적 인물의 유물, 지리학, 지형학과 정치학, 법학과 행정학, 시학 및 순수 문학 등에서 언어의 고급 과정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발견될 것입니다.

Still, when all that is superfluous or imperfect has been deducted, there will be found in the departments of Confucian philosophy, both of the earlier and later schools; of Archaeology; History and reliquia of public men; Geography, topographical and political; Law and Administration; Poetry and Belles Lettres; enough to satisfy the needs of an advanced student of the language.³⁹⁾

즉 웨이드 컬렉션은 중국학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자 시도했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여건에 의한 한계상 모든 분야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종교 부분에서의 부족함은 웨이드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다.⁴⁰⁾ 그렇다고 이에 대한 서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류 항목 중 Z. 항목이 종교, 과학 등 분야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항목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이 분야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불교와 도교 등의 내용은 A. 유가 경전 과 철학 분야에서 철학 부분으로 수록했음을 볼 수 있다. Z. 부분의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이고, 앞에서 언급한 불교, 도교는 A. 항목의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다.⁴¹⁾

본 발표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인 유가 경전류와 소학류는 A와 E 항목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몇몇 책은 웨이드 본인이 언급한대로 중복되어 있고 그것도 각 분야로 흩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康熙字典》이다.⁴²⁾

여기에서의 구분은 《사고전서》에 채용된 經史子集 체계에 근거한다. 유가 경전은 경부에서 경부 소학류를 제외한 것으로 각각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孝經類, 五經總義類, 四書類, 叢書로 구분하고자 한다.⁴³⁾ 소학류는 경부 소학류를 가리킨다. 이 속에서 크게 訓詁之屬, 字書之屬, 韻書之屬 등으로 나누어

37) a.는 다른 복본(copy) 또는 판본(edition) 등을 나타낸다. b.는 정확해진 않지만, a.와 또다른 복본 또는 판본이거나 차이 점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ab가 동시에 붙어 있는 경우는 명확하지 않다.

38) 이는 Giles(1898), PREFATORY NOTE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39) Giles(1898), PREFATORY NOTE, p.V.

40) "그것은 매우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도교 또는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습니다."(It contains very little, for instance, relating directly to Buddhism; much less to Taoism, or Islamism.)

41) A. 항목중 불교와 관련한 자료는 A406-407. 《佛本行集經》부터 A425. 《翻譯各義集選》까지이지만, 이 중 A422. 《正教真全》은 이슬람교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12 작품 18권이다. 도교와 관련한 자료는 A376-398. 《十子彙函》부터 A401-405. 《歷代神仙通鑑》, A426. 《老子道德經攷異》와 A427. 太上混元道德真經 등 6 작품 31권이다. 이 중 도교 관련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곳에는 A400. 墨자가 포함되어 있고, 《十子彙函》은 목록의 설명에 의하면 "다양한 학자의 주석이 있는 열 명의 도교 철학자의 작품으로, 《노자》, 《열자》, 《장자》, 《순자》, 《관자》, 《한비자》, 《양자》, 《회남자》, 《문자》, 《할관자》이다."(*The writings of the Ten Taoist Philosophers, 老子 Lao Tzū, 列子 Lieh Tzū, 莊子 Chuang Tzū, 荀子 Hsün Tzū, 管子 Kuan Tzū, 韓非子 Han Fei Tzū, 楊子 Yang Tzū, 淮南子 Huai-nan Tzū, 文子 Wén Tzū, and 鶡冠子 Ho Kuan Tzū, with commentaries by various scholars.*)로, 현재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엄밀한 입장에서 도교 관련 자료라 할 수 없다. 아마도 웨이드는 도교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슬람교 관련 자료는 앞서 언급한 A422. 正教真全과 F153. 回回原來 등 2 작품 2권이다. 어떻게 보더라도 A 항목의 전체 숫자 175 작품 478권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임을 알 수 있다.

42) 이는 소학류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43) 《사고전서》의 분류에서는 樂類도 포함되지만, 웨이드 컬렉션 전체에서 樂類로 분류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살펴보고자 한다.

3.1 유가 경전류

컬렉션 목록에 나타나는 유가 경전류는 총 109종 616권이다. 앞에서 언급한 A. 항목에 대다수 속해 있지만, E. 항목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D. 항목에도 하나 포함된 것이 있다.⁴⁴⁾ 그 중 각각 易類는 A5. 《易漢學》, A122-123. 《周易折中》 등 13종 17권, 書類는 A17-18. 《尚書古文疏證》, A124-126. 《書經傳說彙纂》 등 6종 11권, 詩類는 A23-24. 《詩故考異》, D201-202. 《詩古微》 등 6종 15권, 禮類는 A33-35. 《儀禮節略》, A144-149. 《周官義疏》 등 22종 81권, 春秋類는 A26. 《左氏辯例》, A28. 《春秋說畧》 등 8종 18권, 孝經類는 A159. 《孝經注解》, A160. 《孝經》 등 2종 2권, 五經總義類는 A1. 《六經圖定本》, A300-301. 《東山經解》 등 4종 6권, 四書類는 《四書章句集註》, 《四書考異》 등 32종 91권, 叢書에는 A180-217. 《十三經》, Y1-102. 《皇清經解》 등 16종 375권이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서명 등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특기할 만한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역류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易經本意》와 《李氏易傳》을 들 수 있다. 《易經本意》는 宋 朱熹의 《周易本義》가 아닌 清代 사람인 何志高的 책으로 알려져 있다. 컬렉션 목록에서는 저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李氏易傳》은 당대 李鼎祚의 《周易集解》를 가리킨다. 이는 청대 盧見曾(1690-1768)이 편집한 판본으로 《雅雨堂叢書》에 포함되는 것이다.

시류에서는 《詩古微》를 보고자 한다. 이 책은 청대 魏源에 의해 지어진 책으로, “<齊魯韓毛異同論>, <夫子正樂論>, <四始義例篇>, <詩序集義> 등 모두 30여 항목의 제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齊, 魯, 韓의 三家詩說을 견지하면서 《毛傳》 및 《毛詩》의 ‘大序’와 ‘小序’를 비판하고 고문경학파를 배척하였다.”⁴⁵⁾ 웨이드 컬렉션의 설명에 의하면 단순한 “시 작품에 대한 비평”(Critiques on poetical composition)으로 파악하였기에 D. 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짐작한다.

예류에서는 A136-143. 《儀禮義疏》와 E33. 《明堂大道》을 보고자 한다. 《儀禮義疏》와 그 아래 연속으로 나오는 책인 《周官義疏》, A150-158. 《禮記義疏》에 대해 컬렉션 목록의 설명에서는 《儀禮義疏》와 《禮記義疏》에는 title-page가 없다고 하였고, 《周官義疏》에서는 乾隆의 서문과 鄂爾泰(1680-1745), 張廷玉(1672-1755), 朱軾(1665-1736) 등에 의한 저서로 표시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아마도 이 세 종류의 책은 《三禮義疏》로 합본되어 있는 것을 각 항목으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三禮義疏》의 순서가 바로 《周官》《儀禮》《禮記》로 되어 있어 책 표지에 기록된 내용이 《周官義疏》에만 있는 것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고전서에서도 예류의 하위 분류에서 주례, 의례, 예기로 되어 있고, 청대에는 주례는 일반적으로 周官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明堂大道》는 일반적으로 《明堂大道錄》으로 알려져 있다. 컬렉션 목록에서는 저자를 惠棟學으로 표시하였다. 알려진대로 이는 惠棟의 오류로, 惠棟學이라 표시한 것은 惠棟의 저작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著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學’등으로 나타낸다. 이는 惠棟의 학문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춘추류에서는 분류 상에서 잘못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A27. 《呂氏春秋》와 A32. 《晏子春秋》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두 서적은 모두 A. 항목 즉 고전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앞의 《詩古微》의 경우와 같이 완전한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呂氏春秋》는 A26. 《左氏辯例》와 A28. 《春秋說畧》 사이에 놓이면서 《春秋》류로 오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晏子春秋》는 아마도 춘추류의 가장 마지막에 두면서 설명상으로는 “역사적 기록의 집합”(a collection of historical notes)라 설명하였지만, B. 항목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역시 春秋라는 명칭 때문으로 보인다.

44) D201-202. 《詩古微》를 가리킨다. 이는 웨이드 또는 자일즈의 분류 잘못으로 파악된다. 아래에서 설명이 자세하다.

45) 이남중(2019), p.138 참조.

사서류에서는 《사서》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다양한 판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순히 《四書》라는 제목으로 표시된 책은 A164-165., A326.이 있다. A164-165.은 朱熹가 서문과 주석을 더한, 1189년(淳熙己酉) 서문이 써 있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四書章句集註》로, 크기는 33×21cm이다. 즉 A83-85.의 《四書章句集註》와는 성격이 동일한 책이다. 그렇지만 A164-165.는 발간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책이다. A83-85.는 주희의 서문과 주석에 의해 표점이 되어 있고, 陳宏謀(1695-1771)가 편집한 책으로 청대에 간행된 판본이다. 크기는 26cm이다. A326.은 컬렉션 목록에 의하면 22×18cm의 사서의 필사본이다. 이처럼 웨이드 컬렉션에서는 성격상 동일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와 발간연도 등의 차이가 있는 책은 수집하여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⁶⁾

충서류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X1-120. 《通志堂》과 《皇清經解》이다. 《通志堂》은 《通志堂經解》를 가리킨다. 컬렉션 목록에 의하면 “徐乾學이 편집한 것으로 유가 경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주석의 모음집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참고할 책으로 《皇清經解》를 참조하라.”(A collection of the most famous commentaries on the Confucian Canon, edited by 徐乾學 Hsü Ch'ien-hsüeh (see Y1-102.) 1675. 25cm.) 하였다. 通志堂은 납랍성덕(納蘭性德, 1655-1685)의 실명(室名)이다. 이 책은 납랍성덕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서건학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청대 이전의 유가 경전의 해석과 관련한 저작을 모은 것으로 대부분 송대와 원대의 경해이고, 희구본(稀覯本, 후세에 남아 전해지는 것이 드문 책)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에 사상적 흐름을 보는 데에는 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⁴⁷⁾ 컬렉션 목록에는 서건학의 편집 등 이면적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皇清經解》는 완원(阮元, 1764-1849)이 兩廣總督일 때 學海堂을 세우고 편찬한 것으로, 엄걸(嚴杰) 등 여러 학자의 참여로 이루어진 集體 작업의 일환이다.⁴⁸⁾ 컬렉션 목록에서는 “통지당을 잇고자 하는 의도로 嚴杰에 의해 편찬된 현재 즉 만주-타타르 왕조의 저자에 의한 유가 경전의 설명”(Explanations of the Confucian Canon by writers of the present or Manchu-Tartar dynasty, edited by 嚴杰 Yen Chieh, and intended to be a continuation of the Tung chih t'ang)으로 앞서 《通志堂》 때의 설명과는 결이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웨이드 컬렉션에서 언급한 유가 경전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오경총의류는 아래 소학류의 훈고지속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동시에 논의하고자 한다.

3.2 소학류

웨이드 컬렉션에 나타나는 소학류는 총 60종 174권이다. 훈고지속은 A41. 《爾雅註疏》, E218-219. 《經典釋文》 등 14종 56권, 자서지속은 E208-211. 《說文解字注》, E422-424. 《字彙》 등 24종 77권, 운서지속은 E29-30. 《音學全書》, E427-436. 《五車韻瑞》 등 22종 41권이다. 대부분 E. 항목, 즉 사전류에 있지만 경해(經解)와 관련한 것은 A. 항목에 있기도 하고, F. Z. 등 분류를 하지 못하고 잡다한 것(Miscellaneous) 또는 종교(Religion), 과학(Science) 등(etc)으로 둔 것도 있다. 《經典釋文》는 사고전서에서는 오경총의류에 포함되지만 그 성격상 훈고 쪽에 가깝다고 발표자는 판단하여 훈고지속에 포함시켰다. 또한 A285-287. 《日知錄》과 E34-36. 《通雅》는 사고전서에서는 자부 잡가류에 포함시키지만, 전자는 경의(經義)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상에서 고증학의 개조(開祖)로 평가받기에, 그리고 후자는 《爾雅》의 체계를

46) 이에 대해서는 《康熙字典》에서도 유사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4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동양고전해제집 참조
조. (https://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5a1001&titleId=C73&compare=false) (접속일: 2025.04.15.)

48)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동양고전해제집 참조
조. (https://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5a1001&titleId=C77&compare=false) (접속일: 2025.04.15.)

통해 훈고학상 중요한 설명 및 논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훈고지속으로 귀속하였다.

이 부류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康熙字典》의 다양한 판본이다. 앞서 언급한 《四書》와 마찬가지로 《康熙字典》은 E225-237.과 Z1-5., Z23-29. 등 총 3종이 있고, 더하여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E481. 《康熙字典撮要》도 있다. 이는 1878년 선교사 John Chalmers(湛約翰, 1825-1899)가 884음절로 《康熙字典》을 재배치한 축약 사전이다. 이들을 살펴보자면 E225-237.은 이른 바 전본(殿本, The "Palace" edition) 또는 내부분(內府本)으로 고궁(故宮) 무영전(武英殿)에서 인쇄한 초판을 가리킨다. 현재 확인 가능한 《康熙字典》의 전본은 북경의 고궁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⁴⁹⁾ 고궁박물관 소장본과의 차이는 크기이다. 웨이드 컬렉션에서는 26cm라 하였지만, 고궁박물관의 것은 19.5cm×14.1cm로 약 6cm 정도 차이가 있다. Z1-5.는 12mo⁵⁰⁾ 판본으로, 두 장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크기는 36 × 24cm로 아마도 전본을 재편집한 것으로 파악된다. Z23-29.는 크기 30cm의 큰 판본으로, 앞의 판본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4. 그 특징 및 의의

앞에서는 웨이드 컬렉션에서의 유가 경전류와 소학류의 분포와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특징 및 의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 청대의 저작으로 일부 명대의 저작을 포함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당대에 발간된 것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의거하면 청대의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내용을 수록한 서적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59-60. 《日講易經解義》에서 A71-74. 《日講四書解義》까지의 日講 시리즈는 康乾 시기의 경연(經筵)의 산물이다. 이외에도 A275-280. 《經義述聞》, E201. 《經傳釋詞》도 乾嘉 시기의 훈고학의 대가인 王引之의 저작으로 웨이드 컬렉션에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서적 중 중복된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 관찰된다. 앞서 언급한 《四書》와 《康熙字典》뿐만 아니라, 《十三經》 또한 A180-217., A238-255., E100-122. 등 3종이 있다. 각각 살펴보면 A180-217.은 청대 건륭 시기 鄂爾泰와 張廷玉에 의해 간행한 것으로 건륭의 서문이 포함되어 있다. A238-255.는 명대 판본으로 金蟠에 의해 간행되었다. E100-122.은 연도가 기재되지 않은 합본으로 캠브리지 도서관에 의거하면 1852년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위의 세 판본 중 가장 늦은 시기에 간행한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서적에 대한 다양한 판본을 확보하여 참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분류상 애매한 것과 오류 등이 존재한다. 《明堂大道》에서의 저자 표시 오류, 《詩古微》의 경전류가 속한 A.항목이 아닌 문학 작품이 속한 D. 항목 등은 이미 언급한 것이다. 이 외에도 E260. 《佩文詩韻》과 E265-304. 《佩文韻府》는 《佩文詩韻》과 《佩文韻府》로 일률적으로 ‘佩’자를 ‘佩’자로 표기하였다. ‘佩’자는 지명, 인명에 사용하는 자로 그 발음이 ‘風’과 동일하지, ‘佩’의 이체자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經典釋文》의 설명 부분에서 “edited by 陸文弼 Lu Wên-ch'ao from the edition of the Sung dynasty.”라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陸文弼는 盧文弼(1717-1796)의 오자이다. 발음상으로는 동일하지만 《經典釋文》의 편집과 관련이 있는 陸文弼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盧文弼는 다양한 서적을 교감하면서 《經典釋文》 또한 그의 《抱經堂叢書》에 포함되는 중요한 판본 중 하나이다. 盧文弼를 확정하면서 또한 이후의 Sung(宋) dynasty 또한 마땅히 Ch'ing(清) dynasty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웨이드 컬렉션의 유가 경전류와 소학류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의의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중국 청대 서적에 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더하여 일정한 정도의 서적에 대한 검토와 제요

49) <https://www.dpm.org.cn/ancient/hall/165349.html>(접속일: 2025.04.15.)

50) 12절지를 가리킨다.

가 포함된 것으로 간략하게나마 해당 서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는 토마스 프랜시스 웨이드의 중국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관심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라 할 수 있다.⁵¹⁾

둘째, 같은 서적에 대한 다양한 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에 그에 대한 비교 등을 시도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四書》와 《康熙字典》, 《十三經》의 경우, 다양한 판본을 통해 해당 서적의 입수 기간 및 그 중요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이는 선본(善本)을 찾기 위한 웨이드의 노력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웨이드 컬렉션에 나타난 유가 경전 및 소학류 서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특징과 의의를 살펴 보았다.

2장에서는 웨이드 본인과 그 컬렉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체제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3장에서 유가 경전류와 소학류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특징은 일부 이전 시기의 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청대 발간한 책임을 알 수 있었다. 서적 중 중복된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류상 애매하거나 다양한 부분에서 오류로 볼 수 있는 것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을 통해 가지는 의의는 중국 청대 서적에 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판본을 통해 서적에 대한 여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 뿐 아니라 웨이드의 저작인 《語言自邇集》 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그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유가 경전류 및 소학류 외에도 G. 항목에는 周易(G26-27.), 五經(G65-74.), 四書(G75.), 孝經(G79.) 등 유가 경전의 만주어 번역과 G90-93. 《增訂清文鑑》, G110-111. 《漢滿字典》 등 만주어 관련 어학 자료가 있지만 위의 항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외교관이자 중국어교재 저자인 웨이드의 관심사가 반영되어 서적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그의 저작 속에서 어떻게 이 책들을 이용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본 발표문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시간을 두고 후속 작업으로 삼고자 한다.

51) 이러한 서적에 대한 관심은 서문에 해당하는 PREFATORY NO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Giles(1898), PREFATORY NOTE, p.VI, “최근 반란에 의한 20년 간의 혼란기에 중국에서 서적이 훼손된 것은 심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도와 다른 지역에서 큰 도서관이 화재로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 제출하는 것에는 복구가 전혀 불가능한 자료가 거의 없고, 현지인과 외국인이 모두 지금 이순간에도 부지런히 재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품이나 책이 분실되거나 누락되면 그것을 복구하는 데에는 느리고 번거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기다린 끝에 매우 비싼 값을 지불하겠다고 부추김을 받은 수집품의 몇몇 작품의 가격은 제가 1882년 중국을 떠날 때에도 여전히 날마다 오르고 있었습니다.”(The destruction of books in China during the twenty years of disorder consequent upon the late rebellion was terrible. Large libraries have since been destroyed by fire, in the capital and elsewhere. That which I am now tendering to the University includes little if anything that it will be absolutely impossible to recover, and both natives and foreigners are at this moment reprinting industriously. Still, replacement of works or volumes, should any be lost or abstracted, would be slow and troublesome, and the cost of some of the works in the collection, for which, after years of waiting, I have been tempted to give almost fancy prices, was when I left China in 1882, still daily rising.) 이 글을 통해 책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바심과 안타까움 등을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신원철·구현아·노혜정(2021), <《어언자이집(語言自邇集)》 제2판 서문 역해>, 《중국어문논역총간》 제 49집.

Herbert A. Giles(1898), A Catalogue of the Wade Collection of Chinese and Manchu Books in the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rbert A. Giles(1915), Chinese Books in the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Supplementary Catalogue, Cambridge University press.

鄭志民(2019) <劍橋大學圖書館的威妥瑪特藏>, 《史學彙刊》 38期(2019.12) pp. 181-187.

이남중(2019), <魏源 《詩古微》 연구 — <抑> 시 世次를 중심으로> , 중국어문학지 69집, pp.137-183.

동양고전종합DB(<https://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접속일: 2025.04.15.)

故宮博物院(<https://www.dpm.org.cn/>) (접속일: 2025.04.15.)